

<아시아공동체론 에세이>

매주 기대가 되었던 수업 '아시아공동체론'

45번 사학과 이소정

여름 방학에 수강신청 계획표를 작성할 때,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국제학부 수업을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아시아공동체론이란 말은 나의 눈길을 끌었다. 유럽 국가들이 EU를 통해 공동연대를 이루었듯이 아시아지역도 공동의 협동체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왔었다. 또한, 내가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중일 유명대학 교수님과 저명 학자, 최고 정책결정자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이란 생각에 꼭 듣고 싶은 수업이었다. 그리고 수강생 중에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준다는 말은 나를 더욱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했다.

사실 아시아협력 및 갈등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강의를 듣는데 있어서 사전지식보다는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매주 훌륭한 강연자들의 특강 때마다 집중하여 들었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Gong Keyu' 부연구위원님의 '아시아공동체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어강의를 들을 때에는 영어를 알아듣고자 축락을 곤두세웠던 기억이 떠오른다. 평소에 듣던 수업들과는 달리 매주 강의해주시는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색다르기도 하며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또한, 강연자들마다 주제도 달랐으므로 점차 매주 강의를 기대가 되는 수업이었다. 어느새 강의를 기다리며 새로운 것을 알아가길 원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일경제협력 학술대회 당시에는 처음으로 통역기를 접해보았기 때문에 신기하고 들뜬 마음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명하신 분들의 회의를 직접 들으니 마치 내가 국제적인 사람이 된 것만 같았고, 실제로 내가 그러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은 황홀했고, 꼭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다짐했다. 이렇게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억들을 남겨주었고, 큰 꿈을 갖도록 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을 듣고 난 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일본에 대한 생각'이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국가로 삼아 탈취하고 약탈한 나라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면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로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박성빈 교수님을 포함한 일본의 저명하신 분들의 강의는 그러한 나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행들을 저지른 국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한국이 IT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의 도움이 컸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몇 차례 담화를 통한 일본의 사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저명하신 일본분들의 친절한 강의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 안 좋게만 생각해왔던 나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을 들으면서도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사고라 생각했다. 일본분이신 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셨던 '아베 마코토'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도 멋있었고 존경스러웠다. 언젠가는 나도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기도 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을 들으면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경제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기에 한중일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강의는 다소 생소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약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관심을 가졌고 흥미로운 부분이 되었다. 비록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끝났지만, 앞으로는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나 사회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기로 다짐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유와 협력이 가능할 때 비로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학부를 복수전공하고 있다. 국제학부를 복수전공함으로써 아시아공동체론이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뿌듯하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은 수업이었다. 그리고 한중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역사적 측면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어 사학과로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한 나라의 문제를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 즉 아시아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단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각 나라가 국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등의 문제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양국 간에 조금이라도 서로를 배려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으면서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읽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교류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은 대학생들 즉, 젊은 세대들이기에 그들의 노력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스미가와 마사히로' 씨께서 말씀하셨던 "Seeing is believing."을 전하고 싶다.

매주 수업마다 열심히 임하였고, 과제도 몇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했지만 정말로 성적 우수자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계적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과 흥미를 갖고서 한중일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를 느꼈었다고 말하고 싶다.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약문을 작성함으로써 그날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었다. 매주 과제를 끝낼 때마다 뿌듯해 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러한 나의 관심과 열정이 교수님의 마음에도 전달되어 우수 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장학증서와 더불어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공동체론을 신청했던 나의 선택은 옳았다. 내년 2학기에도 개설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주변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이다. 'One Asia'를 목표로 하는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